



Northern Illinois - Wisconsin
Episcopal Area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an Schwerin, Bishop



Rev. Danita R. Anderson, Assistant to the Bishop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danderson@umcnic.org | 872-810-0834

Rev. Barbara Certa-Werner, Assistant to the Bishop
Wisconsin Conference
bcertawerner@wisconsinumc.org | 608-837-8526

주님의 은혜와 평화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주현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성화를 새롭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이 은혜로 충만한 기쁨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합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주현절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별에 관해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한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마태복음 2:12)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제국에 맞선 내용을 알려줍니다. 기독교인중 일부는 교회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정당의 이야기나 정치적 입장을 따르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르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회(Council of Bishops)는 사회 원칙(Social Principles)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회서신을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모든 교회에서 이 편지가 낭독되기를 요청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기도와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척도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감독회의 이민자 태스크포스(Immigration Task Force)는 "당신의 권리를 알아(Know Your Rights)" 모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이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있어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추후 공유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북일리노이-위스콘신 지역의 이민자 사역 기관들에서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이주민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자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양당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원칙에 대해 온전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분명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사역의 현장에서 피난처와 치유, 그리고 희망을 주며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안에서,

다니엘 W. 슈웨린 감독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위스콘신 지역



Council of Bishop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내 이주민, 이민자, 난민의 고난에 대한 목회 서신

2025 년 주현절

"너희가 낯선 사람을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35)

미국의 교회는 이주민, 이민자, 난민과 함께 여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환영할 큰 기회를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독인 우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그들의 인간성, 생계,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미국의 불의한 이민 제도로 인해 지난 수 십년동안 이주민, 이민자, 난민들이 사회의 그늘에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 굶주림, 정치적 및 종교적 박해, 전쟁, 마약 카르텔과 갱단 폭력, 그리고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일부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미국 기업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모집되기도 했습니다. 이주민, 이민자, 난민은 미국 경제를 유지하고, 우리 가족을 섬기며, 자녀와 노인을 돌보고, 가정을 청소하고, 동네를 조경하며, 도로와 집을 건설하고, 우리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친구이며, 교회의 성도들이며 목회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구수주의, 그리고 반이민주의 등의 증오 발언이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하여 많은 미국 정치인들의 표준적인 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정부 하에서 미국 내 1,100 만 명의 불법 이주민을 대량 추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수준의 군대와 사법 기관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량 추방이 허용된다면, 이는 인종 프로파일링 심화, 가족 분리, 공동체와 교회의 기반 파괴, 미국 경제의 약화, 그리고 민주적 법과 정의 시스템의 침식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속지주의에 의한 시민권을 종료하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해체하며, 미국이 망명 신청자를 환영할 가능성을 더욱 축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세례 서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악에 맞서 싸우라”는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사회 원칙(Social Principles)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주민, 이민자, 난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 이주민, 이민자, 난민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를 확인합니다.
-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착취, 폭력,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 교회 공동체는 이주민, 난민, 이민자를 환대하고, 그들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민 정책과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음식, 주거, 교육, 고용,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주민, 이민자, 난민의 신분에 근거해 이들을 범죄화 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거나 처벌하려는 모든 법과 정책에 반대합니다.
- 이주민을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구금하려는 시도를 규탄합니다.
- 특히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분리하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이주민, 이민자, 난민, 그리고 아동을 구금하기 위해 운영되는 영리 구금 센터의 존재에 반대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 정치 공동체 기본 권리와 자유, G 항. 이주민, 이민자, 난민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주민, 이민자, 난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환영하며,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트레이시 S. 말론 감독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회장